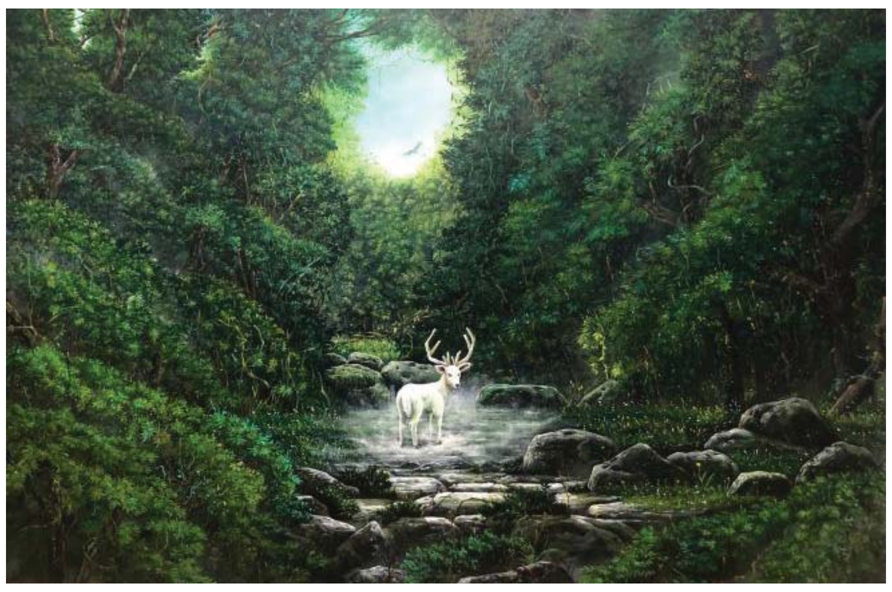
‘삼다도’ 풍경 넘어 본향에 닿으려는 열망

50주년 역사 현인갤러리 제주 청년작가 김산 초대 돌, 나무마다 이야기 담겨 ‘제주다움’을 묻는 작업들



김산의 ‘본향’(한지에 아크릴, 2020).

제주 현인갤러리가 기획한 김산 초대전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형무 관장의 부친이 운영하던 서울 인사동 시절의 화랑(예술의 집, 화랑 한솔)까지 합쳐 올해로 꼭 50년 역사를 지닌 현인갤러리가 모처럼 제주 작가에 눈길을 두고 마련한 전시라는 점이 그 하나다. 그동안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견 작가들을 초대해왔다. 또 다른 하나는 제주 땅의 변화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림 작업으로 ‘기록’하고 있는 젊은 작가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김형무 관장이 몇 해 전 문예회관에서 김산 작가의 작품을 직접 보고 초대전 의사를 밝혔고 이번 전시로 연결됐다.

2018년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청년작가상을 수상했던 김산 작가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모색 2021’(**5월 31일자 8면**) 작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제주 토박이 청년 작가가 그리는 섬의 풍경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팬데믹 시대를 나고 있는 인간 사회의 공통된 고민에 닿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달 23일 시작돼 7월 5일까지 계속되는 초대전은 그 연장선에서 캔버스나 한지에 아크릴 작업으로 ‘삼다도’의 오늘을 응시하고 있다. 바다, 폭낭(팽나무), 곶자왈, 돌담, 오름, 돼지 등 다도(多島)를 구성하고 있되 오늘날 잊혀지거나 소비되고 있는 존재들의 ‘본향’으로 향한다.

그의 작품 속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자연을 그대로 두지 않는 그들이 사라진 자리엔 낮달 아래 우거진 풀과 나무, 그곳을 노니는 새들이 있다. ‘방선문도’의 하얀 사슴이 관람자를 신화의 공간으로 이끈다면, 구름 위 달빛 비추는 ‘무언가’에선 오랜 기간 금기의 언어였던 70여 년 전 비극이 떠오른다.

김산 작가는 이번 전시 도록에 쓴 글에서 “무엇이 제주다움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제주는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삶의 모습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서 “제주의 변화와 발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신중히 결정해 우리의 ‘제주’를 후손들도 보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시장 주소는 제주시 도령로 50 이화오피스텔 2층. 연락처 747-1500.

진선희기자

익숙한 무대와 객석 낯설게 보기

아트센터 ‘디 오브젝트’ 관객 참여형 실감 공연

제주·경기·대구 3개 공공 공연장이 기획한 무대가 제주 7월 무대를 달군다. 제주아트센터에서 7월 3일 오후 2시와 6시에 공연되는 ‘디 오브젝트(THE OBJECT)’다.

이 작품은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배급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제작됐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전체 기획 운영과 작품 제작을 맡고, 경기아트센터는 소속 무용단 참여와 공연, 제주아트센터는 지역 공연의 홍보와 대관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대미술, 한국무용, 현대무용이 어우러지는 ‘디 오브젝트’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관객 참여형 이머시브 실감 공연으로 만들어졌다. 관객이 출연자가 되고, 출연자가 관객이 되는 무대로 제주 공연장에서는 드물게 객석 중간에 특별 무대를 설치해 낯선 경험을 이끌 예정이다.

평창올림픽 등 굵직한 무대를 빚어온 유재헌 유잠스튜디오 대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했고 대구시립무용단 김성용 예술감독이 안무 연출을 맡았다. 6월 대구, 경기 공연을 마쳤고 마지막 일정으로 7월 제주를 찾는다.

입장권은 1층 1만원, 2층 5000원으로 현재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중이다. 문의 728-1509.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아랑의 ‘빛의 물결-싱잉 볼 명상’(영상 설치, 2021).

새롭게 열린 문으로 예술 씨앗 나눔

스튜디오 126 관덕로 이전 첫 전시 ‘수집된 방’ 기획 용담 시절 참여 작가 6인 신작 위주 참여형 전시 등

제주시 용담로에 있던 스튜디오 126이 관덕로 이전을 기념해 그동안 펼친 전시를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달 23일부터 7월 9일까지 펼치는 ‘수집된 방: 하나의 중심과 여러 개의 문’ 주제 전시다.

스튜디오126은 이번에 2019~2020년 기획전에 참여했던 6인의 작가와 함께한다. 강나루, 박정근, 아랑, 조기섭, 조준용, 해요 작가로 평면,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지난 프로젝트에 선보이지 않았던 신작 위주로 꾸며진다. 특히 강나루, 아랑, 조기섭 작가는 공간에 마련된 방을 제공받아 관람자가 구체적으로 작품에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을 구성했다.

강나루 작가는 ‘일상의 씨앗들’이란 이름 아래 지난해 스튜디오126 개인전 출품작인 ‘10평 오아시스’ 등에 활용된 토종볍씨로 관람객들과 직접 차를 만들어 마시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7월 2~3일 오후 2시30분에 예정됐다.

명상가인 아랑 작가는 싱잉볼 사운드를 재생해 관람자에게 명상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 일정은 이달 29일, 7월 1일, 7월 6일, 7월 8일 오전 10시30분이다.

조기섭 작가는 관람객의 의도대로 공간에 놓인 돌을 자신의 손을 빌려 평면에 그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작가의 이번 작업 과정은 전시 기간 매주 월, 화, 목요일 오후 8시부터 유튜브 채널(Ki Seob Cho)을 통해 공개된다.

전시장 주소는 제주시 관덕로 14-4.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일요일은 문을 닫는다. 연계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인스타그램 계정(www.instagram.com/studio126__jeju)을 이용하면 된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이룸갤러리 한성훈 초대전

제주시 연동에 들어선 이룸갤러리가 뉴욕 맨해튼 다시아 갤러리 대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성훈 초대전을 열고 있다.

지난 16일 시작돼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우주의 심포니’를 주제로 마련됐다. 한 생명이 태어나 우주의 시공간 속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화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 작가는 국내외에서 40회 넘게 초대·개인전을 가져왔다. 전시장 연락처 070-7795-5000.

동심묵연회 11회 회원전

붓을 든다는 행복으로 묵향을 나누고 있다는 동심묵연회가 이달 19~24일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제11회 회원전을 열고 있다.

최은철 서예가가 지도를 맡고 있는 동심묵연회는 이번에 힘찬 운필 등을 강조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새기며 각자의 습작에 제주 풍광을 노래한 시를 더해 한문 서예로 풀어내고 있다. 문예회관 전시가 끝나면 이달 25~8월 31일엔 농협 관덕로지점 로비에서 또 한 번 회원전을 선보인다.

제주지원문인화회 회원전

한국문인화협회제주도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인화가 좌경신씨가 지도하는 제주지원문인화회가 이달 26일부터 7월 1일까지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여덟 번째 회원전을 연다.

이번 회원전은 ‘느영나영’이란 제목을 붙였다. ‘감수광’, ‘뱅실뱅실’, ‘돌코롬’, ‘대낭밧’, ‘곱닥허다’ 등 화제(畵題)가 정겹다. 제주지원문인화회는 2009년 신산갤러리에서 첫 회원전을 가졌고 2014년부턴 격년으로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하늘빛 수채화회 정기전

하늘빛 수채화회가 지난 19일부터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다섯 번째 회원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14명의 회원이 참여해 맑은 빛 화면 안에 자연과 사람을 담아냈다. 하늘빛수채화회 회원들은 “고운 하늘빛을, 형형색색의 꽃들을, 자연의 여러 모습들을 화폭에 옮기다 보면 어느새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양창부 작가가 지도를 맡고 있는 단체로 2017년 이래 해마다 회원전을 열어왔다.

국악 기반 퓨전콘서트로 ‘오복 락락’

서귀포예당 문화가 있는 날 광개토제주예술단서 공연

‘통통 튀는 아트데이 인 서귀포’란 이름으로 매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을 펼치고 있는 서귀포예술의전당이 6월엔 국악이 흐르는 퓨전콘서트를 준비했다. 이달 30일 오후 7시30분 소극장에서 열리는 ‘제주 오복 락락(樂樂)’(연출 김창일)이다.

이날 공연은 제주 자연과 설화가 만난 공연을 선보여온 전문예술단체 광개토제주예술단이 꾸민다. 이들은 축원 덕담 소리 ‘비나리’, 국악 합주 ‘프린스 오브 제주’, 사물 국악합주 ‘신모듬’, ‘아리랑’, ‘너영나영’, 풍물 국악 합주 ‘2021 판 놀음’을 통해 장수, 부, 건강, 선행, 천명 등 다섯가지 복을 나누는 무대를 빚는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입장 가능한 인원은 55명으로 제한됐다. 관람료 무료. 입장권은 이달 24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E-티켓에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760-3365.

진선희기자